
고령층 정보격차 방안에 관한 연구

김천석*

A Study on Improve of Information Difference for Advanced Age

Chun-suk Kim*

요 약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서 향후 필요한 정보의 습득여부와 실생활간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이들의 정보소외 현상은 사회문제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경제시대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격차의 결정요인을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보 격차를 분석하였다.

ABSTRACT

As South Korea is becoming the aging society and the relation between information and daily living getting very close, the information alienation of the old population could lead to a social problem.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 of the information gap observed from the old population of South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o the digital economy era.

키워드

Information Difference, Network, Digital Economic Era, Knowledge Exchange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은 그 발전의 패턴은 물론 관련 법규나 제도조차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해왔다. 이동통신·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지식을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여 손쉽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개별 경제주체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화 지식의 교환을 매개로 하는 생산과 소비 활동이 경제의 핵심부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보편화를 통한 시장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 온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에 무지한 사람들을 정보소외 계층으로 전락시켜 정보수단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못한 사람간의 정보격차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정보격차는 소득 집단별, 지역별, 교육 수준별, 국가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집단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서 향후 필요한 정보

* 전남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통신공학전공
1차 수정일자 : 2008. 11. 08

접수일자 : 2008. 09. 26
심사완료일자 : 2008. 12. 15

의 습득여부와 실생활간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이들의 정보소의 현상은 사회문제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변화와 기술변화로 인해 고령층은 현재의 정보격차에 이어 모바일 정보격차 등 새로운 정보격차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빠른 고령화 경향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져 저소득 고령층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고령층의 정보격차 문제는 기본적 인권 보장 차원에서 그리고 정보복지 증진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1].

고령자는 정보화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일반 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고령자는 잔여수명기간 동안 새로운 지식을 배우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의현재가치가 학습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있어 젊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작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이 학습비용이 크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고령층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컴퓨터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채택 및 이용은 고령층이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령간 정보격차는 정보화 부작용 계층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라는 1차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빈곤층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 ·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제약하므로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 양극화의 심화라는 또 다른 경제 ·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인터넷에 종속되어 가는 사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 디지털로부터 소외된 이들 계층의 경우 자기경력 개발의 기회 상실, 타인과의 교류 단절, 유리한 구매 기회의 상실 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실로 제한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고령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고령화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해 본다.

II. 고령화와 정보격차

2.1 고령화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유년층의 인구는 감소하고, 노년층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년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유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 비율을 통해 산출되는 고령화 지수를 토대로 살펴보면 1960년 6.9%에서 1980년 11.2%로 20년간 약2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 후 20년 후인 2000년에는 34.3%로 약 3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고, 향후 20년 후인 2020년에는 12.5%로 약 4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노년층의 인구가 유년층의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14.3%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 이르면 20.8%로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표1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세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것이다[2].

표 1. 인구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Table. 1 Population becoming older in age speed international comparison

구분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고령화)	14% (고령)	20% (초고령)	7%→ 14%	14%→ 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영국	1929	1976	2026	47	50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2.2 고령층의 정보격차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 트렌드는 바로 정보화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1995년 정보촉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1996년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1999년 Cyber Korea 21, 2006년 e-KOREA VISION

2006 등을 수립·집행하여 국가사회정보화수준을 제고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행정서비스는 전자장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업무와 경제활동도 전자상거래, 온라인뱅킹, 온라인 트레이딩 등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 의료, 복지, 여가활동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정보화와 IT산업 발전하에서 정보화 분야에서 소외된 정보취약계층이 발생하면서 정보격차 문제가 야기되었다. 정보격차는 소득집단별, 지역별, 교육수준별, 국가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집단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국민 대비 계층별 종합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계층별 종합 정보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표2에 나타내었다[3].

표 2. 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 수준
Table. 2 Hierarchy ordinary people preparation synthetic information-oriented level

(단위: %)

구분	일반국민 대비 수준	일반국민 대비 계층별 수준
일반국민	100	-
성 별	남성	107.5 7.5 ↑
	여성	92.6 7.4 ↓
연령별	19세 이하	127.0 27.0 ↑
	20대	128.9 28.9 ↑
	30대	117.0 17.0 ↑
	40대	96.6 3.4 ↓
	50대 이상	58.4 41.6 ↓
직업별	농어민	49.8 50.2 ↓
	서비스/판매직	97.0 3.0 ↓
	생산직	78.4 21.6 ↓
	전문/사무직	128.5 28.5 ↑
	주부	77.4 22.6 ↓
	학생	128.5 28.5 ↑
	무직/기타	59.8 40.2 ↓
월 가구 소득별		73.0 27.0 ↓
		104.1 4.1 ↑
		113.4 13.4 ↑
	119.3 19.3 ↑	

지역	101.6	1.6 ↑
규모별	85.2	14.8 ↓

가장 대표적인 정보화 지수인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과 장노년층의 전체 국민 평균대비 정보격차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어민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우리나라의 취약계층 중에서 정보격차가 가장 심한 부문은 장노년층으로 요약된다 하겠다.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해 이용 경험이 적었던 중·장년층이 고령화되면서 이들이 디지털 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정보소외현상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이다. 표3은 장노년층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3] 정부의 노인 정보화 지원사업 대상 연령층인 55세 이상 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18.2%이며, 법정 노인 연령층인 65세 이상 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10.5%로 50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 평균(28.3%)의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장노년층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
Table. 3 Senior year layer age large star Internet utilization factor

(단위: %)

구분	50세 이상	5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	28.3	18.2	12.5	0.5

III. 국내·외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현황

3.1 국내 현황

정보격차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계층간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인식에 따라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1년에 범국가 차원에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범부처가 참여하여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을 각 부처가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며, 2001년부터 금년까지 8차에 걸친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2001년에 수립된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1~2005)』은 전 국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은 비전으로 설정하고 특히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정보통신 접근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국민들의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전국의 거의 모든 농어촌지역에 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었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정보접근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국민 정보화교육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일반국민들의 컴퓨터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한편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2010년까지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일반국민 대비 53.3%에서 80%수준까지 향상시키고 나아가 정보기술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1차와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에는 고령층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화정책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각 부처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해 보면 표 4,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제1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상의 고령층 정보화 정책
Table. 4 First information gap solution comprehensive plan coat advanced age layer information-oriented policy

구분	제1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추진 기간	2001~2005
비전	전 국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추진	전 국민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쓰는

목표	나라 건설과 모든 국민이 경제적·신체적·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없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인 정보화 관련 정책	1,000만명 정보화교육 추진 (2001~2002) 2002년까지 17만명의 노인에게 정보 화교육 실시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심화교육 추진 2003년 이후 장애인, 노인, 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집중 실시 노인을 위한 복지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노인을 위한 생활정보, 취업정보, 여가 게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지침 제정 장애인, 노인의 정보통신 접근편의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 제정

표 5. 제2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상의 고령층 정보화 정책
Table. 5 Second information gap solution comprehensive plan coat advanced age layer information-oriented policy

구분	제2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추진 기간	2006~2010
비전	모두가 함께 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구현
추진목표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53.3%에서 80%까지 제고
노인 정보화 관련 정책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접근성 보장의 제도화 공공부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책무로 규정 환경변화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노인의 정보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노인 복지법, 편의복지법 등 정비 e-Health, e-Care 등 노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정보통신 접근성 인식개선 및 전문가 양성 정보통신 제품 접근성 인증제도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취약계층 500만명 정보화교육 실시 노인복지관, 대학, 평생교육 시설등을 통해 장 노년층 300만명 정보화교육 실시 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디지털 환경 조성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3.2 해외 현황

3.2.1 미국

미국은 고령층 정보화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특히, 50대 이상의 정보화 교육을 주요 임무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시니어넷(SeniorNet)에서는 개인 및 기업 후원자들의 재정지원을 토대로 고령층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986년부터 시작된 시니어넷은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 약 200여 개가 존재하며, 시니어넷 본부와 각 지역별로 지부를 두어 유기적인 고령층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넷 각 지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는 고령층의 정보화를 위하여 정보화 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고령층이 정보화에 친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알칸사스 주 시니어센터의 고령층 정보화 프로그램은 정보화 교실 프로그램은[4] 컴퓨터 기초에 대한 이해 등 정보화 기초교육부터 엑셀, 그래픽과정 등 보다 심화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2.2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산업부의 주요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인 CAP(Community Access Program)를 통하여 고령층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다. CAP는 캐나다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 환경을 제공하고 캐나다 국민이 지식정보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1995년부터 캐나다 산업부와 지방정부, 대학, 학교, 도서관, 각종 사회기관, 자원봉사단체, 민간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정보접근센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정보접근체계인 시니어캐나다(Senior Canada

On-line)를 구축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1996년에 설치된 SC(Student Connections)[5]는 일반 국민과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면, 중소기업에 대한 e-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C에서 제공하는 고령층 정보화교육은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컴퓨터 기초교육부터 온라인뱅킹 등 인터넷을 활용한 실용교육에 이르기까지 실용성을 강조하는 고령층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SC는 지금까지 20만 명에 달하는 캐나다 기업인과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3.2.3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는 유럽 역내 정보사회의 진흥을 위해 정보사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유럽 회원국간의 IT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법제도적인 규제, 정보격차 해소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영역에 걸쳐 협력과 조정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05년 6월에 유럽위원회는 2010년까지 정보사회의 미디어 영역에서의 도전과제와 전략을 담은 중장기 전략인 i2010: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보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략에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급속한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정보격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위원회 차원의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적 노력이 경주 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e-Inclusion이라는 용어로 주로 표현 하고 있다. e-Inclusion은 사회취약계층이 정보이용능력이나 정보접근의 결핍으로 새로운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는 디지털사회에서의 배제를 예방하고 사회취약계층이 낙후지역이 정보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2006년 6월에 EU 회원국 관계 장관들이 리트비아(Litvia)의 리가(Riga)에서 정보격차해소를 장관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는 정보격차와 관련된 주요 의제들이 포함되었는데, 정보통신 접근성(e-Accessibility), 고

령화와 ICT, 정보통신 이용능력과 교육훈련, 사회문화적인 정보격차, 지리적 정보격차,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전자정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유럽은 1920년 기대수명이 55세에서 최근 80세로 증가했는데, 2010년부터 2030년 까지 65세~80세의 인구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진전이 유럽의 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유럽위원회는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ICT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직장과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고령층이 ICT를 활용해 소외감을 극복하고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유럽위원회는 유럽 회원국에서 고령층의 정보화를 저해하는 기술적, 법제도적 장벽을 조사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적절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7년 6월 정보사회에서의 노인복지를 위한 유럽 실천 계획(European Action Plan for Ageing Well in the Information Society)이 채택되었다. 이 실천계획은 직장과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ICT를 연구하는 유럽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실천 계획을 통해 고령층을 위한 시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기술적, 법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고, 고령층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지능형 가정이나 독거생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연구와 혁신을 추구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위원회, 각 회원국,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10억 파운드 이상을 ICT와 고령화 연구와 혁신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럽위원회는 유럽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론 유럽을 고령 친화적 ICT 선도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3.2.4 영국

영국 통계청(ONS)이 지난 2006년 8월 발표한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최근 3개월 이내 이용을 기준으로 15%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16~24세의 청년층은 83%로 그 격차는 68%p나 괴어 세대간 격차

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영국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 수준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55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이 48.2%임을 감안할 때, 영국의 55세 이상 장노년층은 우리나라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영국 웨일즈의 웰시소비자위원회에서는 정보격차의 세대간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도에 웨일즈의 가구내 인터넷 보급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및 2002년 이후의 각 연령별 인터넷 접속률은 2002년 12%에서 2006년 19%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영국방송통신위원회(Ofcom), 영국통계청(ONS) 등에서 고령층 정보이용태를 분석하고, 비이용 요인을 연구하는 등 고령층의 정보사외 통합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 BT Wales에서 실시한 고령층의 인터넷 비이용요인을 조사에 의하면, 고령층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요인을 자신감이나 지식 결여, 인터넷연결성 미확보, 인터넷 접속비용의 부담, 인터넷에 대한 무관심, 인터넷 대용물의 존재, 인터넷으로 인한 혜택이 없다고 생각, 정보보안에 대한 불안감 등 7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고령층의 정보화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영국은 고령층의 정보화마인드 제고, ICT 활용 촉진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영국 웨일즈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인터넷 이용에 따른 다양한 정보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Meet the Mouse와 같은 고령층 정보화 캠페인을 추진하여 이러한 정보화 프로그램의 성과를 입증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Age Concern England와 Digital Unite Limited에서는 Silver Surfer Week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여 고령층이 정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BT, MS 및 Intel 등의 후원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Silver Surfer에서 활동하는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 선호도를 살펴보면, 이메일 이용이 가장 많고(80%), 업무와 학습(60%), 법률 및 재정 관련 정보의 확보(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 국립평생교육연구소(NIACE)에서는 지역조직을 통한 e-러닝 기회제공 및 고령층 정보화 성공사례 등을 보급함으로써 고령층의 ICT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일례로 남

부웨일즈 지역의 경우 디지털스토리텔링 사업을 통하여 고령층이 보다 ICT에 친숙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3.2.5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16세 이상 74세 미만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컴퓨터 이용자는 전체 국민의 56%, 인터넷 이용자는 48%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55세~64세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27%, 65세~74세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11.2%로 우리나라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10대와 20대 등 청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우리나라도 낮아 세대간의 정보격차 수준은 아직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아일랜드는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수상실의 정보사회 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에 아일랜드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인 ASC(Access, Skills, Content)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 계획에서 핵심 정책 대상은 주부, 은퇴자, 노동자, 농림어업 종사자, 그리고 실업자들이다. ASC 계획은 통합 정보사회 추진과정에서 존재하는 후기 기술 채택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으로써 일정 기준에 따라 자원 조직 또는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지원기관으로 채택되기 위한 선정 기준 중에는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할 만한 프로젝트 성격을 반영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고령층 정보격차해소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간접 시사하고 있다. ASC 계획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고령층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을 하는 Age and Opportunity(이하 AO)에서는 고령층의 부정적 태도 개선 및 고령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고령층 관련 포괄적 활동을 수행한다. AO에서는 고령층의 정보화교육, 공공 인터넷 접근 서비스 제공, 고령층의 정보이용 행태 연구, 고령층의 자발적인 정보화 교육 봉사, 고령층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사이버 커뮤니티 지원 등 고령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활동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2.6 스웨덴과 핀란드

스웨덴에서 고령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스웨덴 시니어넷(SeniorNet Sweden)이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 시니어넷은 55세 이상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적·비정기적 네트워크 커뮤니티로서 전체 가입자 중 70세 이상이 20%를 차지한다. 스웨덴시니어넷은 정부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1997년부터 운영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니어넷의 운영 목적은 첫째, 정보통신기술(ICT)에 관심을 가지는 스웨덴 고령층의 사이버커뮤니티(SeniorNet Sweden)를 구축하여 웹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추구, 둘째, 지역사회 기반의 시니어넷 클럽들을 조직하여 정보화에 대한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학습센터 역할 수행, 셋째, 매년 10월 스웨덴의 400~500여개 도서관 및 후원자 협력으로 고령층이 참여하는 정보화 활동 또는 프로젝트 추진,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정보통신기술 도구의 개발 진흥이다.

스웨덴의 고령층은 시니어넷을 활용해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온라인 토론방이나 채팅을 통해 공유하고, 정보통신기술 관련 학습과 자체 교육자료 제작 및 강사초빙 등을 통해 정보통신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편 핀란드는 다른 국가보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여 고령층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사회복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 핀란드의 로바니에미(Rovaniemi)에서 개최된 모두를 위한 접근성 컨퍼런스에서는 고령화와 ICT(Ageing and ICT)세션을 마련하여 고령층의 ICT 이용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세션에서는 주로 고령층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적극적인 온라인 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웹 접근성 설계방안과 아울러 노인복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CT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핀란드에서는 정보격차가 곧 사회격차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정보화는 고령층의 지식과 경험, 고령층의 사회적 교섭능력, 가족 및 비정부기구 활동에서의 고령층의 탁월성, 다음세대에 대한 고령층의 사랑과 관심, 상품 소비를 위한 잠재 소비자층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고령층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대상으로 인식하여 고령층 정보

이용자의 보다 용이한 기술접근을 위한 인터페이스 지원, 고령층의 적극적인 정보사회 참여(e-inclusion)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2.7 일본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일본인의 20.8%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일본 총무성에서 발간한 2006 정보통신백서를 토대로 일본의 연령별 정보격차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50대 인터넷 이용률은 75.3%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60~64세는 55.2%, 65~69세는 42.0%로 해당 고령층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고령층 정보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대, 30대, 40대 등 청장년층 세대와의 정보격차수준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일본정부에서는 정보격차 해소가 e-Japan, u-Japan 등 일본의 국가정보화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 과제로 인식한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일본 내 ICT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주로 정보통신의 저렴한 이용, 이용자 확대, 이용 용이성등에 초점을 두며, 이중 보편적 설계는 특히 고령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주요하게 고려된다.

e-Japan 전략에서는 고령층 정보화를 위한 보편적 설계 정책을 강화하여 고령층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편적 설계의 강화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고령층을 위한 ICT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고령층의 정보기기 및 정보 이용을 촉진시켜 왔다. 한편 일본에는 고령층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니어넷과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주로 고령자 및 장애인의 IT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간기업, 고령자 및 장애인 단체, 지방공공단체, 중앙정부 등이 IT 이용 촉진을 위한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실례로 일본 가나자와市の 이키가이(보람있는 삶) 정보작업센터에서 고령층이 컴퓨터를 통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장애에 상관 없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텔레워크(Telework)를 운용해 관공서, 기업, 관계단체로부터 발주를 받은 작업내용을 통신 회선을 통하여 의뢰받은 후 작업결과를 납품하고 있다. 특히 이 텔레워크 센터에서

는 출입구에 슬로프 설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 시각장애인이거나 고령자를 위한 정보통신 단말, 점자 프린터 및 대형 키보드 등이 비치되어 있어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작업 편의적 환경을 제공한다. 텔레워크센터에 의뢰하는 기관은 매우 다양한데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홈페이지 작업, 민간기업에서는 회의자료 등의 전자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문서의 점자번역, 시니어 네트워크에서는 전자메일의 영어 번역 및 일본어 번역 등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작업내용을 센터에 의뢰하여 고령층과 장애인들의 작업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 2006년 1월 발표한 u-Japan 전략을 통하여 u-IT를 활용한 고령층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u-IT를 활용해 통신회사, 고령층 가구, 지역내 의료센터, 복지사 등을 기술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고령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IV. 결론

고령화 사회 및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고령층에 대한 정보격차 현황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고령층의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취약계층 중에서 정보격차가 가장 심한 부문은 장노년층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이제 겨우 10.5%에 불과하면, 50세 이상 장노년층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저연령층의 정보화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해 보면 노년층의 정보 격차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장노년층 내에서도 연령별, 직업별, 소득격차별로 정보격차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장노년층내에서도 연령별, 직업별, 소득격차별로 차별화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보사회의 필수 인프라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채택 및 이용에 대한 연령효과를 살펴보면 컴퓨터와 인터넷의 채택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중장년층에서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며, 컴퓨터와 인터넷을 채택한 개인의 이용능력 측면에서도 채택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장노년층일수록 부

(-)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보격차 완화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채택 및 이용을 분리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장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정보기술의 채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고령층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노인 콘텐츠의 개발 등 장노년층의 신기술 습득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향후 고령화와 정보화가 보다 급속하게 진전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고령층의 단순한 정보 소외 현상을 넘어 정보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세대간의 갈등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향후 상당기간 동안 고령층의 정보화 촉진이 세대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고령층의 정보화와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정보격차에 따른 세대 간 사회·문화적 이질화 현상, 그리고 통방융합과 유비쿼터스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개될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 현상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층은 소득수준, 학력, 거주지역 등 여러 사회적 변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분화되며, 이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과 욕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집단 분석과 욕구를 토대로한 고객맞춤형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정부가 중심이 되는 일방적인 관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상호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고령층의 정보화정책을 추진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 접근과 정보이용 능력 측면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산적 정보활용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이종,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복지 정책방향, 유비쿼터스 시대 정보복지 정책방향 : 노인정보접근권 향상을 중심으로", 2007년 3월 3일 국회의원 안명옥의원실 주최 세미나

자료. pp.41-63, 2007.

- [2] 통계청 장래구추계, Nov. 2006.
 [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2007.
 [4] <http://www.hotsspringssenior.net/ClassSchedules.html>
 [5] <http://www.studentconnections.ca>

저자 소개



김천석(Chun-suk Kim)

1980년 9월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사)

1982년 9월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석사)

1998년 경남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박사)

1982년~2006년 2월 여수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2006년 3월~현재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수중통신, 정보통신분야